

1. 일반 정보

유형	■ 모의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 · 체육)계열 / (I)문항

2. 2026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출제 근거 - 자료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자본주의 대 기후』	나오미 클라인	열린책들	2016	96~98	제시문 [가]	○
『식물, 국가를 선언하다』	스테파노 만쿠소	더숲	2023	119~122	제시문 [나]	○
『자연과 인간』	가라타니 고진	도서출판 b	2013	65~73	제시문 [다]	○

3. 2026학년도 모의논술고사 문항 해설

본 논술고사에서는 경희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의 정형적 패턴에 따른 [논제 I]을 출제하였다. [논제 I]은 제시문 [다]의 내용이 제시하는 관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와 [나]의 입장을 평가하는 문제로, 기후 위기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이해한 뒤, 자신의 이해와 판단을 요약적이고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각 제시문의 출전은 다음과 같다.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자본주의 대 기후』	나오미 클라인	열린책들	2016	96~98	제시문 [가]	○
『식물, 국가를 선언하다』	스테파노 만쿠소	더숲	2023	119~122	제시문 [나]	○
『자연과 인간』	가라타니 고진	도서출판 b	2013	65~73	제시문 [다]	○

각 제시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가]는 세계적인 환경운동가 나오미 클라인의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에서 발췌한 것으로서, 환경 문제를 자본주의 사회의 이기주의와 탐욕, 물질 만능주의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나오미 클라인은 기후 변화와 환경에 무관심한 자본주의적 가치관을 고정불변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다른 방식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를 위해 환경 운동은 더 바람직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회 운동과 연합해야 한다고 본다.

제시문 [나]는 식물학자 스테파노 만쿠소의 『식물, 국가를 선언하다』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글에서 저자는 현재의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인류 공통의 과제이며,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구에 식물을 가득 채우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제시문 [다]는 철학자 가라타니 고진의 『자연과 인간』에서 발췌한 것으로서, 이산화탄소 온난화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는 글이다. 이 글은 다양한 지역의 조건이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이산화탄소 배출량만으로 인간 활동을 측정하는 온난화설을 비판하고 있다.

[논제 I]은 세 개의 지문을 제시하고, 한 지문의 내용과 관점을 바탕으로 다른 두 지문의 내용과 관점을 파악하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각 지문의 내용을 분별적으로 이해하고 요약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4. 2026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논제 I	<p>점수 배정</p> <p>① 만점: 각 논제 당 100점(두 논제 도합 200점)</p> <p>② 기본 점수: 6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안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이라도 쓰면 60점 - 백지 및 답안과 관련 없는 글, 특별한 표시는 0점 <p>③ 기준 점수: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0점)</p> <p>채점 기준: 정량평가</p> <p>1) 원고지 사용법</p> <p>① 띄어쓰기를 포함한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처리한다.</p> <p>②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한다.</p> <p>③ 백지이거나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표시 여부는 해당 채점위원 전원의 합의를 거쳐 처리한다.</p> <p>2) 원고 분량에 대한 감점</p>	100

- ① 원고 분량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서술 내용을 중시)
- ② 아래의 기준으로 제시한 분량을 조금 벗어났다고 해도 일률적으로 감점 처리하지 않는다.
- ③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논제 I> 801 이상 ~ 900자 이하

700자 미만: 감점 40점

700자 이상 ~ 750자 미만: 감점 20점

950자 이상 ~ 1,000자 미만: 감점 20점

1,000자 이상: 감점 40점

3) 원고 분량에 대한 기준

- ① 답안의 마지막 행에 한 자라도 쓸 경우 한 행을 채운 것으로 간주한다.
- ② 답안 가운데 한 행 이상을 지우고 보충하지 않았다면 그 행은 공란으로 간주한다.
- ③ 주어진 필기도구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란으로 간주한다. (예: 연필로 작성한 부분은 무효처리)

채점 기준: 내용평가

1) <논제 I> (100점 만점/ 60점 기본 점수)

- ① 제시문 [다]의 관점을 정확히 파악했으면 10점 가점
- ②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가],[나]의 요지와 한계를 정확히 지적했으면 10점 가점
- ③ 비슷한 뜻의 문장을 반복하거나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서술했으면 20점 가점(창의성 및 표현력 등을 중시)

※ 채점 시 유의사항

(1) 제시문 [가]~[다]는 각각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적 가치관 대신 다른 방식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구에 식물을 가득 채우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입장’, ‘이산화탄소 배출량만으로 인간 활동을 측정하는 온난화설을 비판하는 입장’ 등 기후 및 환경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글이다.

제시문 [가]는 환경 문제를 자본주의 사회의 이기주의와 탐욕, 물질 만능주의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환경 운동은 더 바람직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회 운동과 연합해야 한다고 본다. 제시문 [나]는 인류의 환경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구에 식물을 가득 채우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 볼 때, 제시문 [가]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고 [나]는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가]는 기후 및 환경 문제를 자본주의적 가치관과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로 인식함으로써 사회 운동과 환경 운동의 결합을 강조한다. 이런 시각은 이산화탄소 온난화설을 비판하면서 기후 문제를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넘어 인간과 인간의 관계, 즉 사회 구조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다]의 입장과 유사하다. 반면 [나]는 기후 문제를 인간과 인간의 관계나 사회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식물을 많이 심는 문제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환경 운동과 사회 운동의 결합을 강조하는 [다]로부터 비판받을 수 있다.

(2) 제시문 [다]의 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와 [나] 내용의 요지와 한계를 논리적으로 서술할 경우 높게 평가한다.

(3) 각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보다는 얼마나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서술하였는가를 중시한다.

5. 2026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예시답안

[다]는 기후 문제와 관련하여 이산화탄소 온난화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는 글이다. 온난화설에 기초한 환경론은 다양한 지역의 조건이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이산화탄소 배출량만으로 인간 활동을 측정한다. 이는 신자유주의의 논리에 기반한 자본주의의 글로벌리제이션에 대응하는 환경론의 글로벌리제이션이라 할 수 있다. 글쓴이는 이를 비판하면서 기후 문제를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넘어 인간과 인간의 관계, 즉 사회 구조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나]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인류 공통의 과제로 본다. 글쓴이는 인류의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구에 식물을 가득 채우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다]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전형적인 이산화탄소 온난화설에 해당한다. 다양한 지역의 조건이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이산화탄소 배출량만으로 기후 문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 문제를 인간과 자연(식물)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다]의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가]는 환경 문제를 자본주의 사회의 이기주의와 탐욕, 물질 만능주의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글쓴이는 기후 변화와 환경에 무관심한 자본주의적 가치관을 고정불변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다른 방식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환경 운동은 더 바람직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회 운동과 연합해야 한다고 본다. [가]는 환경 문제를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가치를 넘어서는 사회 운동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기후 문제를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 [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887자)

1. 일반 정보

유형	■ 모의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 · 체육)계열 / (Ⅱ)문항

2. 2026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출제 근거 - 자료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문학』	정재찬 외	지학사	2023	14	제시문 [라]	×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식물을 위한 변론』	맷 칸데이아스	타인의사유	2022	144~145	제시문 [마]	×
『패자의 생명사』	이나가키 히데히로	더숲	2022	225~227	제시문 [바]	○
『화려한 약속, 우울한 성과』	밀튼 프리드먼	나남	2005	99-100, 277-278, 280	제시문 [사]	○

3. 2026학년도 모의논술고사 문항 해설

본 논술고사에서는 경희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의 정형적 패턴에 따른 [논제 Ⅱ]를 출제하였다. 공존의 필요성과 경쟁의 가치가 동시에 주장되는 오늘날의 현실을 배경으로 각각 ‘공존’을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태도와 ‘경쟁’을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태도를 담고 있는 텍스트를 선별하였다. 각 제시문의 출전은 다음과 같다.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문학』	정재찬 외	지학사	2023	14	제시문 [라]	×
『식물을 위한 변론』	맷 칸데이아스	타인의사유	2022	144~145	제시문 [마]	×
『패자의 생명사』	이나가키 히데히로	더숲	2022	225~227	제시문 [바]	○
『화려한 약속, 우울한 성과』	밀튼 프리드먼	나남	2005	99-100, 277-278, 280	제시문 [사]	○

각 제시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라]는 지학사에서 발행한 『문학』 교과서에서 발췌하였다. [라]는 대상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 복숭아나무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던 화자가 복숭아나무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무의 그늘에서 평온한 상태를 느끼는 장면을 통해 인간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공존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마]는 식물학자 맷 칸데이아스의 『식물을 위한 변론』에서 발췌하였다. [마]는 식물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경쟁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식물의 세계에서 종과 종 사이에 다양한 변이가 존재하는 이유를 경쟁에서 찾고 있다. 몸집이 큰 식물은 바람이나 벼락 등의 자연재해에 취약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식물들은 햇빛이나 양분을 더 많이 섭취하여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몸집을 키운다. 이런 일련의 현상을 통해 저자는 경쟁의 원리가 식물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제시문 [바]는 식물학자 이나가키 히데히로의 『패자의 생명사』에서 발췌하였다. 이 글에서 저자는 경쟁을 중심으로 자연계를 이해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공존의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만일 자연계가 오직 경쟁의 세계일 뿐이라면 지구상에는 소수의 생명체만이 살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자연계에는 여전히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현실을 니치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니치라는 개념은 경쟁이 아니라 공존의 관점에서 자연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제시문 [사]는 경제학자 밀튼 프리드먼의 『화려한 약속, 우울한 성과』에서 발췌하였다. 밀튼 프리드먼은 경제 분야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자유경쟁과 자유무역을 꼽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프리드먼은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려는 정책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경쟁이 존재하는 한 어떤 기업도 자신의 이익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불량품을 유통시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프리드먼은 경쟁이 제거되자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과 달리 요금이 상승한 ICC의 사례를 근거로 경쟁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한다.

[논제 II]는 그동안의 정형적 패턴에 따라 네 개의 지문을 제시하고, 입장이 같은 두 집단으로 분류한 후 한 입장을 선택하여 그 입장을 요약하고 다른 입장을 비판하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다양한 제시문을 동일한 시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 한 입장을 정하여 다른 입장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출제하였다.

4. 2026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논제 II	<p>점수 배정</p> <p>① 만점: 각 논제 당 100점(두 논제 도합 200점)</p> <p>② 기본 점수: 6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답안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이라도 쓰면 60점- 백지 및 답안과 관련 없는 글, 특별한 표시는 0점 <p>③ 기준 점수: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0점)</p> <p>채점 기준: 정량평가</p> <p>1) 원고지 사용법</p> <p>① 띄어쓰기를 포함한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처리한다.</p> <p>②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한다.</p> <p>③ 백지이거나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표시 여부는 해당 채점위원 전원의 합의를 거쳐 처리한다.</p> <p>2) 원고 분량에 대한 감점</p> <p>① 원고 분량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서술 내용을 중시)</p> <p>② 아래의 기준으로 제시한 분량을 조금 벗어났다고 해도 일률적으로 감점 처리하지 않는다.</p> <p>③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p> <p>● <논제 II> 1,001 이상 ~ 1,100자 이하 900자 미만: 감점 40점 900자 이상 ~ 950자 미만: 감점 20점 1,150자 이상 ~ 1,200자 미만: 감점 20점 1,200자 이상: 감점 40점</p> <p>3) 원고 분량에 대한 기준</p> <p>① 답안의 마지막 행에 한 자라도 쓸 경우 한 행을 채운 것으로 간주한다.</p> <p>② 답안 가운데 한 행 이상을 지우고 보충하지 않았다면 그 행은 공란으로 간주한다.</p>	100

③ 주어진 필기도구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란으로 간주한다. (예: 연필로 작성한 부분은 무효처리)

채점 기준: 내용평가

2) <논제 II> (100점 만점/ 60점 기본 점수)

① 제시문을 공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라]와 [바], 경쟁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마]와 [사]로 분류하였으면 10점 가점

② 공존의 긍정적 면과 경쟁의 긍정적 면에 대해 제대로 요약하였으면 10점 가점

③ 특정 입장에서 다른 입장을 가진 제시문들을 각각 제대로 비판하면 10점씩 가점 (한 제시문 비판에 10점 가점)

※ 채점 시 유의사항

(1) 제시문 [라]~[사]는 공존을 강조하는 [라], [바]와 경쟁을 강조하는 [마], [사]로 나뉜다. 제시문 [라]는 자연(대상)에 대한 인간의 진정한 이해와 공존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제시문 [마]는 식물의 세계에서 목격되는 다양한 현상을 경쟁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제시문 [바]는 경쟁의 원리를 통해 자연계를 이해하는 기존 인식과 달리 니치라는 개념을 통해 자연계에 공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제시문 [사]는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자유경쟁과 자유무역이라는 사실을 통해 경쟁의 중요성과 가치를 설명한다.

(2) 제시문 [라], [바]의 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 [사]의 요지와 한계를 논리적으로 서술한 경우, 또는 제시문 [마], [사]의 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라], [바]의 요지와 한계를 논리적으로 서술한 경우 높게 평가한다.

(3) 각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보다는 얼마나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서술하였는가를 중시한다.

5. 2026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예시답안

[라], [바]의 관점에서 [마], [사]를 비판하는 경우

[라], [바]는 공존의 가치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세상은 경쟁만이 아니라 공존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계이다. 근대 이후 인간은 자연을 지배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자연은 수단과 대상으로만 취급되었다. 하지만 [라]에서 나무의 마음을 읽고 그 그늘에서 평온한 상태를 느끼는 화자의 모습은 자연이 이해와 공존의 대상임을 일깨워준다. [바]는 자연계가 경쟁에서 승리한 생물만 생존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경쟁만 있다면 현재와 같이 수많은 생명체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라]와 [바]는 공통적으로 공존이라는 관점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공존의 가치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마]와 [사]는 다음과 같이 비판될 수 있다. [마]에 따르면 식물의 세계는 경쟁의 결과물이다. 키가 큰 식물이 바람, 가뭄 등의 환경에 불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개체보다 더 크게 자라는 이유는 그것이 생존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식물의 세계에 존재하는 공존의 역할과 기능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짚신벌레의 공존이 증명하듯이 자연계에는 경쟁만이 아니라 공존의 원리도 존재한다. 수많은 생명체가 공존하고 있는 숲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경쟁의 원리만 존재한다면 숲은 지금처럼 다양한 종류의 생명이 공존하는 형태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마]의 시각은 이러한 공존의 가치와 역할을 간과한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

[사]는 기업 간, 국가 간의 자유경쟁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사]는 기업은 좋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하므로 자유경쟁이 허용된다면 소비자에게 불량품을 판매하려는 회사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사]는 경쟁이 제거되자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과 달리 요금이 상승한 ICC의 사례를 근거로, 경쟁만이 공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자유경쟁이 허용된 상태에서도 불량품이 생산되거나,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사례처럼 때로는 상생과 공존을 통해 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은 간과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사]의 입장은 공존의 가치와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한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1095자)

[마], [사]의 관점에서 [라], [바]를 비판하는 경우

[마], [사]는 경쟁의 가치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마]는 키가 큰 식물이 바람, 가뭄 등의 환경에 불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개체보다 더 크게 자라는 사례를 통해 자연계에서 경쟁이 갖는 가치를 말하고 있다. [마]에 따르면 지금의 식물들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경쟁의 결과이다. [사]는 경제 분야에서 자유경쟁이 가장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 수단이라는 사실을 통해 경쟁의 가치를 말하고 있다. [사]에 따르면 경쟁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불량품이 만들어질 수 없다. 불량품 생산은 기업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쟁은 자연계와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이다.

경쟁의 가치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라]와 [바]는 다음과 같이 비판될 수 있다. [라]에 따르면 복숭아나무로 대표되는 자연은 공존의 대상이다. [라]의 화자는 처음에는 인간과 식물 사이에 극복할 수 없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나무에 가까이 가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나무의 진정한 마음을 읽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인간의 생각을 식물에 투사하여 얻은 결과라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특정한 조건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과 공존이 자연계의 원칙이라는 것은 다르다. 인간은 지금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나무를 활용해 왔으며, 나무와 나무의 관계에서도 생존 경쟁은 늘 존재했다. 이런 점에서 [라]는 역사적·자연적 사실과 주관적 의지를 혼동하고 있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

[바]는 짚신벌레를 이용한 두 가지 실험 사례를 통해 공존의 가능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자연계는 적자생존의 원칙에 따라 경쟁에서 패배한 생물은 멸종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자연계의 싸움이 니치(niche)를 둘러싼 싸움이라는 주장은 생물의 멸종이 경쟁이 아니라 니치의 유무에 따른 결과이며, 이는 자연계를 공존의 세계로 인식할 근거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러한 니치의 존재가 경쟁이나 그것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생물이 서식하는 니치가 중요하긴 하지만, 생존과 번식 자체에서 경쟁의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바]는 단편적인 사례를 일반화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1043자)